

# 함께 소통하는 작가회의

## 조직 강화

-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사회 수립  
(지회 사무국장 및 40세 이하 회원의 이사 배정)
- 분과 활성화 및 신설 논의(장르문학, 시나리오, 희곡 등)
- 경기 지회 신설
- 회비를 통한 자립성 확보
-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정체성 계승

## 소통

- 한국작가회의 지회 행사와 연대
-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 활용 의견 수렴
- 『내일을 여는 작가』 청탁 시스템 정리
- 사무국장단 회의 적극 참여 및 의견 반영

## 회원 권리 증진

- 저작권 사안에 대한 타 문학단체와 연대
- 출판 계약 등 필요시 법률 자문 지원
- 예술인 패스 혜택 확대
- 지원사업 등 주요정보 메일링 서비스 확대

### 김희정(金熙正)

대전작가회의 사무국장, 회장, 『작가마당』 편집주간,

한국작가회의 감사 역임 / 현재 대전작가회의 고문

2002년 〈충청일보〉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

시집 『백년이 지나도 소리는 여전하다』 『아고라』

『아들아, 딸아 아빠는 말이야』 『유목의 피』

『몸의 이름들』 『시서화는 한 몸』

산문집 『십 원짜리 분노』 『김희정 시인의 시 익는 빵집』

글쓰기 교재 『15분 글쓰기 여행』

한국작가회의  
사무총장 후보

김희정

1  
기호